

# 한국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난다

### '광주화루-10인 작가' 전 21일까지 문화전당

'한국화의 현재를 만나다.' 오는 2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열리는 '제3회 광주화루-10인의 작가'전은 한국화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는 흥미로운 전시다.

전시장 초입에 걸린 민재영 작가의 '먼지 낀 날'과 'PM 8:35'는 현대를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수묵채색의 가로 선들을 중첩시켜 드러낸 이미지는 뚜렷하지 않아 오히려 공감을 자아내며 작품에 다가가게 만든다.

관람객을 몰려다미 바라보는 최창호 작가의 강렬한 인물화는 수묵화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손을 그려모으고 지긋이 응시하는 '마더 테레사'는 자연스런 수묵의 번짐과 활달한 붓질이 어우러지며 강한 인상을 준다. 이태욱 작가의 작품 'Practical Dreamer'는 한지에 번진 오묘한 색감이 눈에 띄는 작품으로, 자신과 세계에서 발생하는 '부조화의 순간'을 화폭에 담는다는 작가의 말처럼 얼핏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 화면속에서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광주은행이 문화 공헌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시작한 광주화루(光州畫樓)는 수묵화의 본고장으로 전남국립수묵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전남이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수묵화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화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광주화루'는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에게서 유래한다. 그가 제주도 귀양에서 돌아와 서울 용산에 머물 때 서화를 하는 제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솜씨를 겨루고 김정희의 품평을 받았다. 이때 화가 그룹의 명칭이 '화루(繪樓)', 서가 그룹이 '묵진(墨陣)'이었다. '화루'를 '화루'로 바꾼 주희숙은 그림으로만 경쟁을 벌였던 화루의 정신을 이어가고 한국화 진흥의 보루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전시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4개월간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선정된 이들이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림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화가라는 존재에 대한 자의식을 탐구하는 회화적 성과물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은 대상 수상자 이현민 작가는 '그려지는 밤', '간지러워' 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진주 작가의 '네 개의 질문'은 두 개의 각기 다른 그림을 위아래로 배치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수진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대인의 욕망을



대상-이현민 작 '간지러워'

드러낸 작품을 전시 중이다. 김효연 작가의 작품 '그렇게 살아(사라)진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탄생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이영호 작가의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연작은 먹과 묵단, 돌가루 등을 재료로 사아 화면에 독특한 질감을 부여했다.

한편 지난 28일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2017년 첫 번째 유근택 성신여대 교수가 수상했으나 올해는 당선자를 내지 못해 2020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무료 관람. 월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1899-526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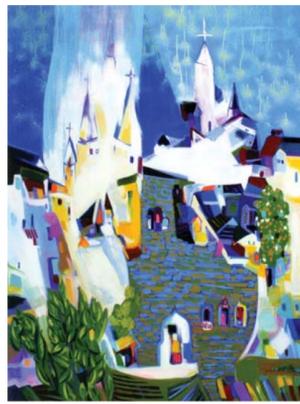
최창호 작 '천명-성녀 테레사'

물감, 수채화 물감과 한지 등 다양한 소재를 결합해 승무의 움직임을 반추상 느낌으로 그려냈다. 지난 2014년, 37년 교직생활을 마친 박 작가가 뉴욕 전시 '마지막이라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을 독려한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전시작의 대부분은 여행을 소재로 했다. 여행기와 그림을 묶어 책을 펴내기도 했던 그녀는 고향을 만난 곳에서 마음에 담은 사이프러스 나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히말라야산, 한적한 지중해의 어느 마을 등 지금까지 여행에서 만났던 풍광들을 화폭에 풀어냈다.

박 작가의 작품은 무엇보다 원색의 화려한 색감이 눈에 띈다. 근작들은 옛 작품에 비해 추상성이 좀 더 가미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별이 빛나는 밤'

## '여행의 작은 침표' 박영진전 4~10일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박영진 작가에게 '여행'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1994년 떠났던 네덜란드 히말라야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사했다. 마음 깊이 들어온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이고, 그걸 바라보며 느낀 감정과 환희를 그림으로, 글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그림에 한참 빠져들던 그녀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됐다.

박 작가가 4일부터 10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9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지난 2012년 갤러리D 전시 이후 광주에서 갖는 7년만의 전시다.

'여행의 작은 침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작은 세계 각국의 풍광을 담은 작품과 전통 무용 '승무'를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이다. '승무' 시리즈는 지난해 뉴욕 첼시의 K&P갤러리에서 열린 해외전시를 준비하며 진행한 작품들이다. 아크릴, 유화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에냥** 4월호 나와

## 광주·전남 투어 '버스는 문화를 신고'

### 꽃차 전문점 탐방

여행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요즘, '여행하는 인간' (Homo Viator)은 현대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에냥'은 4월호 특집으로 '버스는 문화를 신고'를 준비했다.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를 손쉽게 돌아볼 수 있는 '시티 투어'와 9900원을 내고 남도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남도한바퀴', 뉴욕 버스타워 '더 라이드' (The Ride)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투어버스를 타고 떠나본다.

남도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생애도시순천을 추천한다. 전남도택리지지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순천으로 향한다.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탐사르 습지'에 등록된 순천만과 봄 여행지의 '끝판왕' 순천만국가정원 외에도 향동 문화의 거리, 철도문화마을, 드라마 촬영장 등 새로운 역사문화 볼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여행 초대석에서는 '생태사학자' 강판권 교수를 만나본다. 강판권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역사학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나무에서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읽는 '나무 인문학자'다. 나무와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여수동락' (興樹同樂)의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강 교수를 만나 나무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문화현장은 인류사의 보고(寶庫) 영국박물관 편이다. 대영박물관으로 더 유명한 영국박물관은 파리의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유럽 3대 박물관으로 불린다. 800만 여점을 소장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지만 각국에서 약탈해 온 전리품의 수장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꽃피는 봄이 오니 봄 향기 그윽한 꽃차 생각에 꽃차 전문점을 찾았다. 5000평 규모의 꽃농원에 100여 종류의 꽃을 키우며 꽃차를 만드는 김순희씨를 만나 꽃차를 만드는 방법과 봄에 마시면 좋은 꽃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외에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 클럽 일대를 잠입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메이 드 인 강남'을 펴낸 주원규 작가와 고공 농성 장소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기록하는 사진작가 문선희, KIA타이거즈 외국인 선수들의 영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영민씨와의 인터뷰도 담았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연재중인 '남도시네마 산책' 남도영화사의 증인 광주극장 두 번째 이야기, 문항(文香)이 숨쉬는 장흥 천관문학관,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 세 번째 이야기 부산시민도서관, 강재운 시인의 '윤선도 무릉도원' 보길도와 전복포, '트렌드 따라잡기' 세대와 장소를 떠나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대세 등도 읽을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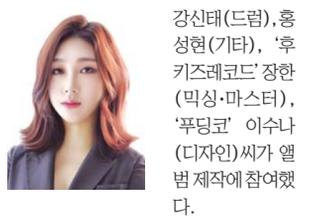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싱어송라이터 '루다' 두 번째 싱글 발매

싱어송라이터 '루다' (Looda·본명 김혜지·사진)의 두 번째 싱글 앨범 '거짓말'이 지난 27일 발매됐다.

광주 출신인 루다는 클라우드 레코드 소속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자신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새벽'을 발표하기도 했다.

3분 30여 초 동안 이어지는 노래 '거짓말'은 루다가 직접 작사·작곡했다. 거짓말을 읽는 연인에 대한 감정을 솔직한 노랫말과 리드미컬한 선율로 표현했다. 장보비(건반), 기병진(베이스),



강신태(드럼), 홍성현(기타), '후키즈레코드' 장한(믹싱·마스터), '푸딩코' 이수나(디자인)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다.

루다의 싱글 앨범은 멜론·벅스·지니·엔넷·소리바다·네이버 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